Entertainment p/18
185회 투약 박시연 등 기소

메트로 2013년 3월 14일 목요일 www.metroseoul.co.kr

News p/02
31조 용산개발 결국 부도

바람 잔뜩 든 과자봉지 과태료 300만원
NEWS p/02
가장 일본스러운 봄을 만나러 떠나자
TRAVEL p/20

서울 마포구 서교동 '에이티폭스 카페'를 방문한 직장인 서승기·유경선씨가 '파우더룸'에서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metroseoul.co.kr

카페·호텔서 화장 즐기는 그녀!

"먹고 마시고 즐기게 해줘야 더 바른다" 뷰티업계 이색 체험존 유행

13일 오후 서울 홍대 앞 카페 '에이티폭스' 카페에 들어서자 한편에 각종 화장품이 진열된 파우더룸이 시선을 잡아끈다. 티라테일 디저트 등 먹거리는 물론 기초 화장품에 세면대까지 마련된 이곳은 '파우더 카페'로도 불린다. 대학생 최수빈(22) 씨는 "맛있는 차와 디저트를 먹으면서 공짜로 화장도 할 수 있어 친구들과 자주 들른다"며 "여기서 써보고 구입한 제품이 꽤 된다"고 말했다.

불황 속 뷰티업계가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여성들의 구매를 이끌기 위한 '이색 체험존' 경쟁에 한창이다. 이제는 '체험'이야 지갑이 열리는 시대다.

단순히 제품만 써볼 수 있는 '테스팅 바'의 개념을 넘어 소비자들이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는 놀이터로 꾸민 것이 특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품을 눈으로만 보며 구입하는 시대는 갔다"며 "고객에게 제품 기회를 제공해 구매를 유도하는 체험 마케팅이 각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뷰티 브랜드 에이티폭스가 지난해 말 연 에이티폭스는 화장품과 카페를 접목한 형태다. 매장은 차(茶) 화장품이라는 콘셉트에 맞게 티 칵테일을 마시며 화장품을 직접 써보고 살 수 있는 '체험 스토어'로 꾸몄다. 에이티폭스의 황혜진 마케팅 과장은 "체험 매장을 연 뒤 온라인으로만 판매했을 때보다 매출이 2배 이상 뛰었다"며 "지금도 차를 마시러 왔다 화장품을 사가는 손님이 많다"고 말했다.

코리아나도 새로운 스타일의 '코스메틱 바'를 경기도 분당구 정자동에 선보였다. 언뜻 트렌디한 카페처럼 보이지만 코리아나의 '세니스텔' 매장이다. 고객들이 테스트 제품을 발라보는 사이 매니저는 유기농 차를 내온다.

◆해외 관광객 겨냥 코스메텔 등장

K 뷰티가 인기를 끌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호텔 등을 뷰티 브랜드 체험존으로 꾸민 '코스메텔(코스메틱+호텔)'도 등장했다.

LG생활건강은 '화장품 쇼핑의 메카' 서울 명동의 호텔스카이파크에 '더페이스샵 룸'을 만들었다.

9층 복도와 비즈니스 센터에 더페이스샵 로고를 노출하고, 24개 객실에 베스트셀러 화장품을 비치해 체험 기회를 제공한 것. 이 호텔에 투숙 중인 한 일본인 관광객은 "평소 더페이스샵을 좋아해 콘셉트룸을 미리 예약하고 왔다"며 "낮에는 명동 로드숍에 들러 지인들의 선물도 한 꾸러미 샀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도 명동 호텔스카이파크 III에 에뛰드하우스를 테마로 한 '프린세스 스위트 룸'을 운영 중이다. 동화 속 공주 침실을 연상시키는 인테리어에 웰컴 선물로 에뛰드의 미스크랩 네일 컬러 등을 마련해 여성 관광객들의 호응을 끌고 있다.

더페이스샵 관계자는 "해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고를 하는 것보다 외국인들이 애용하는 호텔을 중심으로 '체험존'을 꾸미는 게 비용 대비 훨씬 효과적"이라며 "특히 제품 체험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확실히 인식시켜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기자 pjw@metroseoul.co.kr

무너진 단군이래 최대사업 13일 서울 관훈동 드림허브 본사에 설치된 용산개발 건축 모형 앞으로 취재진이 몰려 있다 /연합뉴스

31조짜리 용산의 눈물

첫삽도 못뜨고 결국 부도… 3억씩 대출받은 서부이촌동 주민들 분통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끝내 채무 불이행(디폴트) 상황에 처해 최종 부도를 맞이하면서 후폭풍이 들이닥치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곧바로 소송 제기 등 법적 책임 추궁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번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금융권은 돈을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빠졌다.

13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자산관리위탁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은 전날 자정까지 갚기로 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 52억원을 내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이날 오후 11구역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코레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등의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이상규 비대위 대표는 "동네 사람들의 재산권이 장기간 묶이면서 피해가 막심하다. 관련 당국이나 업체가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서부이촌동은 2007년 사업부지에 편입되고서 6년째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고 있다. 비대위에 따르면 서부이촌동 주민 2298가구 중 절반이 넘는 1250가구가 가구당 평균 3억4000만원을 대출받은 상태로 사업 공전이 길어지면서 집이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권의 직간접적인 피해도 극심하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번 디폴트로 인한 금융권의 직접적인 피해액은 2365억원에 달한다. 용산 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재무적 투자자로 출자한 금융기관은 모두 5곳으로 알려졌다. 이들 금융기관은 드림허브가 최종 부도 처리되면 투자금 전액을 날릴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휩싸였다. /김현정기자 kjhen1@metroseoul.co.kr

신용카드 매출액으로 본 지역별 최고 호황업종

커피숍 중구·중국집 강남구

미용실이든 중국집이든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서울 강남구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렸다. 다만 여전히 창업이 이어지고 있는 업종인 커피전문점의 경우는 서울 중구가 강남구를 크게 앞섰고, 갈비·삼겹살집을 내려면 수원시 팔달구가 제일 좋았다.

13일 현대카드의 마이비즈니스 사이트에 게재된 3월 1일 기준 카드 매출 현황을 보면 여성 미용실 주간 매출에서 강남구가 7억3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서민들의 대표 외식업종인 중국 음식에서도 강남구는 3억2000만원으로 뒤를 이은 서초구(2억4000만원), 종로구(1억6000만원)를 앞섰다. 예식장 역시 강남구(5억1000만원)가 매출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국에서 커피전문점이 가장 인기 있는 상권은 중구로 9억6000만원의 매출을 보였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밀집한 지역 특성이 반영된 덕분이다. 강남구는 2억1000만원에 머물렀다.

또 갈비·삼겹살집은 수원시 팔달(8억9천만원), 군포시(2억4000만원), 수원시 장안(1억7000만원), 안산시 단원(1억9000만원) 등 1~10위까지 거의 모두 지방이었다. /김지성기자 kizhan@

다음달 초까지 꽃샘추위 기승 강원 산간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13일 강릉시 홍제동 도로변 봄꽃 위로 눈이 쌓여 있다. 기상청은 이날 올 꽃샘추위는 다음달 초순까지 찾아올 전망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7월부터 과자봉지 속 공기 35% 못넘는다

적발땐 과태료 300만원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들어있었다"는 네티즌의 장난 섞인 불만이 사라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7월부터 제품 보호 목적으로 공기를 충전해 포장하는 제과류의 경우 빈 공간이 35%를 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과류의 포장 공간 비율은 20% 이하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내용물의 부스러짐 방지 및 변질 예방 목적에서 질소를 충전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왔다. 일부 업체들은 이를 악용해 제품 보호를 위해 넣는 질소를 과다 충전해 내용물이 많아 보이는 효과를 냈다는 지적이 일었다. /김유리기자 grace@

뉴스 & 뉴스

가족 가입경력도 인정해 자동차 보험료 할인

● 자동차보험료 할인 할증 기준이 24년 만에 손질된다. 금융감독원이 13일 밝힌 방안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가입경력이 인정되는 대상이 확대된다. 처음으로 운전대를 잡아 보험 가입경력이 1년 미만인 최초가입자는 보험료율이 138%로 높지만 3년 이상이 되면 보험료율이 100%로 할인된다. 지금까지는 가족한정특약(가족도 운전자 범위에 넣는 특약)과 부부한정특약(배우자도 운전자 범위에 넣는 특약)에서 배우자와 가족은 가입경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박상용기자

전국학원 심야 교습제한 밤10시로 통일추진

● 전국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오후 10시로 통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학원 교습시간을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어 지역에 따라 제한시간이 다르지만 이를 법률로 격상해 규제하는 방안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을 개정해 학원·교습소의 심야 교습시간을 교과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최근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학원법은 시·도 조례로 학원 교습시간을 정하고 교육감이 단속하도록 하고 있다. /박선옥기자

내 친구를 뽑아주세요~ 13일 서울 마포구 소의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린이회장 선거를 앞두고 등굣길 유세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삼성 '통섭 인재' 키운다

철학·사회학 등 인문학도 뽑아 SW전문가로 양성 '파격 실험'

'한국판 스티브 잡스'를 양성한다.

삼성그룹이 이 같은 목표에 맞춰 인문계 출신 중에서 소프트웨어(SW) 전문가를 뽑는 파격에 나선다. 특허전쟁을 벌일 정도로 명석인 애플의 성공 전략 'IT 기술과 인문학의 융합'을 창조적으로 받아들인 셈이다.

삼성그룹은 철학·사회학 등 인문계 전공 지원자 중 200명을 뽑아 6개월간의 내부교육을 거쳐 SW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는 '삼성 컨버전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공계가 아닌 인문계 전공자를 SW 엔지니어로 뽑는 것은 국내 기업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올해는 우선 삼성전자와 삼성SDS에서 200명의 인문계 전공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인원은 월 50만원씩 교육 지원비를 받으며 ▲프로그래밍 언어 수준의 SW 기초과정 ▲제품·반도체 등 3개 분야 특화과정 ▲기업 프로젝트 위주의 실전과정 등 3단계로 나눠 배우게 된다.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하면 정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입사할 수 있다.

희망자는 18~22일 삼성 공채 홈페이지(www.samsungcareers.com)에서 지원하면 된다.

삼성 관계자는 "이번 채용을 통해 소프트웨어 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문계 전공자에게 다양한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그룹은 계속되는 세계 경기침체 등 불확실한 고용 환경에도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이 올해 채용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대졸 신입사원 9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상반기 채용 규모는 지원자의 규모와 수준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국헌기자 kuller@metroseoul.co.kr

대법원 재판 사상 첫 인터넷 중계

법원의 공개 변론 사건이 사상 최초로 인터넷을 통해 중계된다.

대법원은 21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열리는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와 네이버를 통해 중계방송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실시간 변론보다는 20분가량 지연 방송 형식으로 중계된다.

이번에 중계되는 재판은 국외이송약취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 A(26)씨 사건이다. A씨는 한국인과 결혼한 뒤 남편 동의 없이 생후 13개월이 된 자녀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해 친정에 맡겨 약취 혐의를 받고 있다. /배동호기자

고3 첫 학력평가 영어 B형 선택 비율 85%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85%는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난이도가 높은 영어 B형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원자 기준으로 과목별 A-B형 선택비율은 국어A 49%-B 51%, 수학A 62%-B 38%, 영어A 15%-B85%로 나타났다. 국어와 수학을 둘다 어려운 B형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인문계는 국어 B형-수학 A형, 자연계는 국어 A형-수학 B형을 선택하는 분위기 속에 대부분의 학생이 영어는 어려운 B형으로 선택한 것이다. /배동호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률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21-중-44181호 (광고)

한방칼럼

혈액순환장애는 어혈을 제거

어느날 갑자기,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가쁘다. 손발이 저리고 저리다. 어깨 근육과 뒷목이 뻣뻣하다. 두통이 잦고 어지럼증이 있다. 쉬어도 몸이 무겁고 개운치 않다."

한의학박사 황창구 원장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어혈(정체되어 순환되지 않는 피)을 혈액순환 장애의 원인 중 하나로 본다.

이 어혈로 인해 만성두통이나 편두통, 목·어깨결림, 손발저림, 수족냉증, 심장질환, 근육마비, 고혈압, 중풍, 동맥경화, 만성피로증후군 등 각종 순환기계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런 질환들은 중년이후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혈관이 노화되어 각종 노폐물이 혈관에 쌓이기 때문이다. 건강의 방해 요소인 어혈을 약물이나 수술요법을 쓰지 않고 몸 밖으로 뽑아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한의학적 방법이 금진옥액요법이다.

금진옥액요법은 흔히 죽은피를 뺀다고 하는 사혈요법의 일종. 금진옥액이라는 말은 사혈을 하는 부위가 혀 아래의 금진, 옥액이라고 하는 혈자리이기 때문에 붙여졌다. 이는 혀 아래의 정맥에서 어혈을 제거하는 치료법으로 기존의 사혈요법이 소량의 혈액을 제거하는데 그친 반면 상당히 많은 양의 어혈을 제거함으로써 혈액순환 장애로 오는 각종 질병에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금진옥액요법 시술에서는 입안에서 마치 실타래 같은 것이 나온다. 이것은 몸 안에 있던 섬유소들이 시술한 부위를 통해서 나오는 것으로 정상적인 반응이다. 대게 섬유소가 많이 나오고 피가 따할수록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어혈이 많은 상태라 볼 수 있다. 시술할 때 따끔한 정도의 통증만 느낄 뿐이다. 단 혈액응고성 빈혈 혈우병 환자는 시술할 수 없다. 어혈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타박상, 골절 등 교통사고나 스트레스, 장시간 눕거나 앉아있어도 생긴다.

허담한 운동, 금연, 금주, 녹황색 야채나 등푸른 생선을 먹는 것이 혈액순환장애 질환 예방에 좋다. 또한 달맞이한의원(www.moonhill.co.kr)의 해독요법은 금진옥액 외에도 간청화지료, 청장요법 등으로 인체 정화를 통해 각종 질병을 다스린다.

가공된 음식의 발달 및 잘못된 식습관, 잘못된 배변습관으로 인해 대장에는 묵은 변이나 숙변이 고여 있게 되어 유해한 부패된 가스가 신체에 흡수되어 인체의 면역이 떨어진다. 묵은 변이나 숙변을 제거하여 대장을 정화해주는 청장요법은 인체의 해독에서 중요한 것이다.

또한 간 속에 분포된 담관에는 담즙찌꺼기나 노폐물 등이 있는데 이를 제거하여 간이 대사하고 남은 찌꺼기를 원활히 내뿜 할 수 있도록 하수구를 청소하듯이 정화해주는 간청화지료를 시행하면 간 기능이 좋아지면서 피로가 덜어지고 몸이 가벼워진다.

이 청장요법과 간청화지료는 금진옥액요법과 함께 인체의 독소를 배출시키는 중요한 해독요법이다. 단 대장 및 직장 간에 질병이 있는 환자는 진료 및 상담 후 시술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

부산은행 희망꽃씨 나누기 부산은행은 지난 12일 오전 부산 시청 투터 백봉휴 쿼과 부산은행 본점 전 영업점에서 '봄을 드립니다~ 봄꽃기 나누으로 행복한 부산의 꿈 이루는 슬로건으로 희망꽃씨 나눠주기 가두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3500여 개의 전문작물 및 부산시 곳우뿐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들에게 시퀘꽃이 인사와 함께 봉숭아꽃, 상추 및 꽃잎 씨앗 등 모두 3만 봉의 꽃씨를 나눠줬다.

태양열 온수설비 피해주의보

매년 꾸준히 증가세
작년 부·울·경 37건
'품질불량' 가장 많아

최근 태양열 온수설비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택의 태양열 온수설비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137건으로 2010년 15건, 2011년 54건, 2012년 68건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산·울산·경남지역 피해는 37건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도별로는 경기 20건, 경남 19건, 경북 17건, 전남 14건, 충북 13건 등의 순으로 경남지역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열 온수설비는 비용이 300만원에서 1600만원의 고가이지만 구입 후에는 품질 불량과 서비스 지연 및 불이행 으로 피해를 본 경우가 78.1%에 달했으며, 계약해지 요구 거부도 17.5%로 집계됐다.

관련 소비자 피해는 137건 가운데 107건이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발생했다. 피해자의 61.4%는 방문판매를 통해 온수설비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 112명 가운데 81.3%에 해당하는 91명이 50대 이상 고연령층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김종권 차장은 "현재 태양열 온수설비의 경우 정부가 선정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면 구입가의 50%를 보조받을 수 있어 상급한 계약의 사례로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태양열 온수설비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방문판매원의 권유에만 의지하지 말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부 선정 사업자 여부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확인해볼것 을 당부했다.

/김수미기자 kum@metrobusan.co.kr

여성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

부산시는 원도심권 여성인력개발센터 신규 설치,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사업 지원 확대, 여성친화도시 지정·확대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3 여성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시는 먼저 10억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부산진·동래·해운대·사상구 등 4곳에서 운영되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중구와 서구 등 원도심권 지역의 취·창업 희망 여성을 위해 신규로 설치하기로 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 훈련, 취·창업 지원, 여성복지 증진사업 등을 담당한다. 시는 또 신라대, 한국해양대, 동서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현재 사상구와 연제구 등 2곳에 지정된 '여성친화도시'를 1곳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국제연극제 워크숍 5월 개최

제10회 부산국제연극제 조직위원회는 5월 2일부터 12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진행되는 'BIPAF 워크숍' 참가자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이 워크숍은 지난 2004년 제1회 부산국제연극제부터 시작돼 부산국제연극제 기간 중 세계적인 연극계의 거장들과 함께 연극에 대해 토론하고 배우는 참여 프로그램이다.

워크숍에는 만 18세 이상 일반인 및 전문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선착순 2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은 홈페이지(www.bipaf.org)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e메일(play@bipaf.org) 접수하면 된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61
총괄전체인 남궁호
사장 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호
부산지사장 직대 김유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658-2100
독자센터 (02)721-9862
2002년 5월 21일 창간 2002.5.월 등록번호 문화가 00017

전공서적 나눔장터 13일 오후 동서대 민석기념도서관 로비에서 열린 '책나눔 장터'를 찾은 학생들이 교재를 저렴하게 구입하고 있다. 이날 장터는 새 학기 전공서적 구입비 절약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재학생과 교직원 100여 명이 600여권의 헌교재과 서들을 못 가게 학생들 정가에 판매했다. 이날 수익금은 장학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동서대 제공

숲 체험교실 7개월간 운영

부산시는 부산진구 초읍동 어린이대공원 숲 계발학습센터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시민을 위한 '숲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숲 생태해설가들이 직접 만들고 기증한 곤충 박제와 모형, 솔방울·씨앗 등의 전시로 마련된 생태 체험 공간인 숲 체험교실에서는 ▲나무 이야기 ▲연색하기 ▲미귀나비 관찰하기 ▲백암산 생태 탐방 등 총 8개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숲 생태해설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체험과 아이디어를 통해 발굴됐으며 참여자(단체)의 나이와 특성에 맞춰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월요일(휴관일)을 제외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자연환경에 대한 교육과 숲(나무) 체험·관찰 활동 등이 진행된다.

체험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가량 소요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070)7740-5387

김민부 시인 기념 전망대 개소

'기다리는 마음'의 작시자 고 김민부 시인을 기념하는 김민부 전망대가 부산 동구 초량동 이바구길에서 문을 연다. 동구청은 김민부 시인의 출생일인 14일 김민부 전망대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민부 시인 유족, 문학계운영위원회 회원,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 낭송과 가곡 합창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민부 전망대는 부산항과 북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이바구길 중간 지점에 있다. 김민부 시인이 '기다리는 마음'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애잔함을 그대로 떠올릴 수 있는 곳이다.

동구 출신 천재 시인인 김민부는 15세 때 신춘문예로 등단해 3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60여 편의 주옥같은 작품을 남겼다.

만덕 1터널 등 일반주거지 변경 등 202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안 확정

부산시는 2011년 4월부터 추진해온 '202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을 실현하는 하위 계획인 재정비(안)에는 북구 만덕 1터널 입구~사하구 감천동 789번지~금정구 장전동 산 40번지 등 30개소(0.72㎢)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서구 아미동 부산대학병원 옆~사하구 괴정동 서라의원 주변~동래구 동래역 동쪽 등 지하철 역세권의 상업기능 활성화를 위해 용도 상향 필요 지역 28개소(0.52㎢)를 준주거지역으로 확보했다.

상업지역은 남구 대연동 검성대 인구 사하구 장림동 장림시장 주변 동래구 안락교차로 일원 등 13개소(0.32㎢)를, 공업지역은 남구 용호동 남부하수처리장 등 3개소(0.16㎢)를 확보했다.

또 북구 덕천교차로 주변에 대해 최저고도지구를 변경(6m 이하→9m 이하)했고, 서구 충무동 새벽시장 등 상업지역으로 결정된 13개 지역에 대하여 방화지구를 병행 지정(변경)했다.

해상보험 전문가 키운다

양성과정 내달 5일부터

부산시와 보험연수원은 해양금융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해상보험 전문가 양성 과정'을 다음달 5일부터 7월 26일까지 약 4개월간 한국선원센터에서 실시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 교육은 선박구조, 해상보험, 선박금융 등 각 교과별 학계 및 업계 최고 전문가 강사진의 현장 중심 강의와 선박구조 시뮬레이션 체험 및 선박 승선 체험을 통해 실무 지식과 현장감을 두루 배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교육 대상은 부산·경남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손해보험사, 한국해운조합 및 선주협회 회원사, 선주상호보험, 해상 전문 손해사정회사, 해상보험 전문 로펌 변호사 등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및 격주 토요일(총 148시간)에 중구 중앙동에 소재한 한국선원센터에서 실시한다.

교육비는 금융위원회가 30%, 보험연수원이 20%를 지원하고 수강생은 50%(15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교육 신청은 소속 회사 인사 교육담당 부서를 경유해 오는 27일까지 보험연수원 대연교육부 운영기 발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720-0821

신라대, 우리술 양성기관 뽑혔다

고창복분자연구소와 함께 선정…"막걸리 고급화 교육 중점 추진"

신라대가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우리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양성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신라대와 고창복분자연구소 두 곳이며, 교육훈련 담당기관에 선정된 곳은 한국바텐더협회와 전통우리술연구소다.

13일 신라대에 따르면 이번 선정에 따라 대학 부설기관인 막걸리세계화연구소 주관으로 실습실 등 교내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해 전통주 관련 업계 CEO, 관련 종사자는 물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전통주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진행한다.

이 대학이 시행할 인력 양성 분야는 양조가공학과 양조미생물학, 양조화학 및 분석, 술 위생 안전 및 품질관리, 제품 패키징 및 디자인, 관능검사, 술 연구 개발 동향 및 산업동향 관련 법규 등이다.

김미향 신라대 막걸리세계화연구소장은 "앞으로 막걸리의 고급화를 위해 위생 안전 및 품질관리, 표준화를 위한 발효 미생물의 개발, 제품 패키징 등의 교육 내용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라대는 지난 2009년 10월 교내 교수들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막걸리세계화연구소를 설립, 심포지엄 개최와 각종 연구 작업 등을 통해 막걸리를 세계 수준의 술로 브랜드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이에 지난 2011년 신라대 전통주 RIS사업단과 부산산성양조가 공동 기획한 '부산가짜쌀막'이 벨기에 브뤼셀 오토월드 뮤지엄에서 열린 '2011몬데 셀렉션 약식 주류 부문 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수미기자 kim@metrobusan.co.kr

대선주조 흑자 전환

작년 당기순이익 8억원

부산 향토기업 대선주조(주)가 지난해 흑자로 전환됐다고 13일 밝혔다.

대선주조는 '2012년도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매출액은 458억여 원, 판관비(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 203억여 원, 당기순이익은 8억964만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선주조는 14일 주주총회에서 감사보고서 내용을 확정, 공시한다. 이번 흑자 전환은 BN그룹에 대선주조를 인수한 첫해인 2011년 94억여 원의 적자를 기록한 뒤 2년도 되지 않아 흑자로 돌아선 것.

지난해 흑자 달성은 경상비 절감 노력과 BN그룹 전체 임직원 1000여 명이 참여한 범그룹 지원의 공격적 판촉 노력의 성과라고 대선주조 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즐거워예 리뉴얼 제품에 대한 인기와 판매량 상승, 100% 천연 알칼리수로 만든다는 사실을 강조한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의 성공, 부산 향토기업인 BN그룹이 대선주조를 인수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인 대선주조를 살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높아진 것도 한몫을 한 것으로 회사 측은 분석했다.

박진배 대선주조 대표이사는 "올해 부산시장 점유율 목표치인 45%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대, 교내 쇼핑몰 시행사 대출금 400억 대납위기

부산대가 교내 쇼핑몰 '효원 굿플러스'(현 NC백화점)의 시행사 효원E&C가 빌린 돈 400억원과 연체이자를 물어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

13일 부산대와 부산지법에 따르면 농협은행(주)은 최근 부산대와 부산대 기성회를 상대로 효원E&C가 빌린 원금 400억원과 연체이자 39억원을 지급하라며 '약정 시 지급금'를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효원E&C가 2010년 10월 돈을 빌릴 때 부산대가 "효원E&C 측이 대출금 상환에 차질이 생기면 부산대가 국비 지원이나 기성회비로 상환한다"는 이면계약을 해주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했고, 효원E&C가 지난해 4월부터 이자를 연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효원E&C는 2011년과 지난해 효원 굿플러스에 대해 부과된 교통유발분담금 6200만원도 연체해 부산대 소유인 이 건물이 압류될 정도로 재정난이 심각한 상태다.

이에 따라 부산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 법적 대응에 들어가기로 했다.

광안대교서 트레일러 추돌사고 13일 새벽 3시55분께 부산 광안대교 하판에서 해운대 방향으로 달리던 트레일러(운전자 전모씨·54)와 택시(운전자 하모씨·53)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가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70m가량 비스듬하게 미끄러진 뒤 왼쪽 가드레일과 충돌한 이후 1~3차로에 걸쳐 직각 형태로 멈춰섰다. 사고 충격으로 트레일러 운전석이 있는 머리 부분이 적재칸과 분리된 난간을 넘어 바다로 추락했고, 운전자 전씨가 실종된 상태다. /부산해경 제공

봄 소식 전하는 개나리 '활짝' 봄비가 내린 13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의 한 주택가에 개나리가 꽃망울을 활짝 터뜨려 봄 소식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웃음건강치료사 자격연수

세계웃음건강박수협회는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제7기 건강박수치료사·웃음건강치료사 자격연수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연수는 공인 1급 건강박수치료사 자격과 웃음건강치료사 자격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연수다.

협회는 공인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 복지관, 병원, 노인대학, 백화점 등 부산·경남 등 2000여 곳에서 웃음건강치료사·건강박수치료사로 널리 활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수는 웃음건강박수 창시자 조영춘 박사가 직접 진행한다. 문의 051)441-5511, 7895

강기성 부산과기대 총장 취임

부산과학기술대학교는 14일 오후 2시 대학 내 청우홀에서 제9대 강기성 총장 취임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취임식은 부산과학기술대학교가 교명 변경 이후 1년째를 맞는 36주년 개교기념식 행사에 맞춰 치러질 예정이다.

강기성 총장은 취임식에서 ▲차별화된 교육체제 구축 ▲내실 있는 행정 실현 ▲소통하는 대학경영을 통해 부산과학기술대학교의 중장기 발전 계획 조기 달성 등의 대학 운영 포부를 전한다.

대학에 따르면 강 총장은 1986년 학교법인 송암학원 이사장을 시작으로 2001년 이 대학의 제6대 학장에 취임한 후 7년간 특성화사업대학, 학과평가최우수대학, 주문식교육사업대학, 산학협력취업약정사업대학, 주문형인력양성사업대학에 선정되는 데 기여했다.

층간소음 전담팀 만든다

서울시, 주민조정위원회·협약도 상반기 제정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주민조정위원회'와 '주민협약'이 상반기 중 마련된다.

서울시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결 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우선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자율적인 토론과 합의과정을 거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주민협약' 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협약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분쟁이 지속될 경우 조정에 나서는 '주민조정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했다.

10~15명의 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협약 제정과 이후 발생하는 소음 민원 등을 조정·권고하고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공무원 7명으로 이뤄진 '층간소음 해결 전담팀'과 '전문 컨설팅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전담팀은 120다산콜센터와 연계해 24시간 민원 접수가 가능한 체제로 운영되며 컨설팅단은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배동호기자 sleeen@

호주·뉴질랜드 명문대 가려면?

16일 유학박람회 열려

IDP에듀케이션(www.idpkorea.co.kr)은 2013 호주·뉴질랜드 유학박람회를 16일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인근 '블루스퀘어 NEMO'에서 연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호주·뉴질랜드 주요 대학들이 부스 운영과 상담을 직접 맡을 예정이며 입학설명회, 워킹홀리데이, 어학연수, IELTS 세미나 등이 함께 열린다.

호주와 뉴질랜드 대학들이 직접 상담을 하기 때문에 어학원 담당자들이 진행하는 박람회보다 현지 대학 현황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세계 대학 랭킹 100위 안에 속하는 호주 명문대 그룹 'Go8'인 시드니대·멜버른대·퀸즐랜드대학교는 물론, 뉴질랜드 명문 오클랜드대학교와 뉴질랜드 명문 사립학교 재단 ACG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학교 담당자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박람회 당일 유학 지원 시 입학 신청비 13만원(화페)이 면제되며 호주어학연수(5주) 수강권, IELTS 응시권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17일에는 부산 벡스코에서도 열린다. 문의 02)533-7246(서울)·051)816-7246(부산)

/배동호기자

눈은 사진에 마음은 딴곳에 : 황우여(오른쪽 둘째)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오른쪽)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9회 한국보도사진전 '사람을 보다, 시대를 읽다' 개막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중앙일보 조용철(왼쪽) 기자의 안내로 대상 수상작 '당황케 하려해 잡힌 당대표'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량식품 철퇴 맞는다

제조·판매 최저형량제 도입… 박 대통령 "학교폭력 등 사회악 척결"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인 '4대 사회악' 척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박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임기 내 척결하겠다고 공약했다.

김동연 국무총리실장은 최근 경북 경산의 고등학생이 학교폭력 문제를 제기하며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대책회의를 주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회의에는 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 차관, 경찰청 관계자 등 10개 부처가 참석해 CCTV 설치 현황과 관리 실태 및 성능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량식품 제조·판매업자에게 살인 등 중죄에 적용하는 최저 형량제를 도입하는 등 종합적인 불량식품 대책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식품 제조·판매업자가 불량식품으로 부당이익을 얻을 경우 매출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이익몰수제'와 3회 이상 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판매한 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제'등도 도입한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4대 사회악 관련 정부 부처의 긴급회의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4대 사회악 척결이야말로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새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사안인데 이런 불안에 떨고 있으면 어떻게 국민이 행복하겠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클럽과 근처 주차장에 설치된 직거래장터 등 현장을 찾아 농축산물 유통 상황을 살피는 등 민생 챙기기 행보에 나섰다.

/김유리기자 grace@metroseoul.co.kr

공동구매하면 더 비싼 교복

민병두 "업체 담합 의혹"

서울지역 일부 중·고등학교의 교복 공동구매가가 개별구매가 평균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나 업체 간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서울지역의 교복 시장 담합·폭리 의혹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지역 교복 구매 실태 자료에 따르면 교복을 공동구매한 262개 중학교 가운데 19개교 학부모가 개별구매가 평균(22만6733원)보다 최고 5만3267원(23.5%) 높은 가격으로 교복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13개 고등학교 중 30개 고교 학부모는 평균 개별구매가(21만5029원)보다 최고 22만원(102.3%) 비싸게 교복을 구매했다.

민 의원은 "학부모들이 교복 공동구매를 전개했으니 교복업체들이 담합·덤핑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KOSPI: 3/7 2004.40 · 3/8 2006.01 · 3/11 2003.36 · 3/12 1993.34 · 3/13 1999.73 (+6.98)

KOSDAQ: 3/7 541.30 · 3/8 543.10 · 3/11 540.44 · 3/12 543.88 · 3/13 549.73 (+5.86)

Nikkei (일본) 12239.66(-75.15)

Hang Seng (홍콩) 22556.65(-333.95)

Shanghai (중국) 2263.97(-22.60)

Dow Jones (미국) 14450.06(+2.77)

EXCHANGE RATE	
달러	1097.40
엔(100)	1147.49
유로	1431.31
위안	176.60

이마트 대신 까르푸 샀다면 5배 수익

'코스피 대안' 해외투자 하려면 · 국내 선호주와 동급 글로벌주 관심을

해외 증시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크게 늘었다. 글로벌 증시는 순항하는데 국내 증시는 홀로 답답한 흐름을 보이는 까닭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국내 대장주인 삼성전자급의 대형주를 선호한다면 현재 믿고 갈아탈 만한 국내 종목을 찾기 어렵다"며 "대안 투자로서 체급이 비슷한 글로벌 기업의 주식에 관심을 갖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

1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결제금액은 지난 2월 7억13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1.3%나 증가했다. 상당수 자금이 일본, 중국, 유럽, 홍콩 등국의 글로벌 기업으로 흘러들었다.

보통 해외 주식은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고팔 수도 있고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직접매매 또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실시간으로 사고파는 방식 등으로 투자할 수 있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증시 투자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미국과 일본 증시 등이 상대적으로 호황이기 때문이다. 미국 경기 회복으로 다우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일본 증시도 엔저 현상이 힘입어 랠리를 보이면서 엑손모빌, 월마트, 도요타 등 대형 종목들의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 국내 내수 소비주인 이마트가 2.9% 오르는 동안 미국 월마트와 프랑스 까르푸는 각각 7.0%, 15.4% 크게 상승했다. 국내 대표 수출주인 자동차 업종도 상황은 비슷해 현대모비스가 연초 대비 5.7% 오를 동안 일본 덴소는 38.2% 치솟았다.

게다가 국내 업종 1위 기업들의 자기자본이익률(ROE) 수준이 글로벌 경쟁업체들보다는 뒤처지고 있는 점은 글로벌 증시와 국내의 디커플링(탈동조화) 우려를 더 높인다.

이는 펀드 성적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금융정보회사 에프앤가이드 집계를 보면, 이날 현재 해외 주식형 ETF의 평균 수익률은 연초 대비 3.45%로 국내 주식형 ETF(0.18%)를 크게 웃돈다.

다만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에는 반드시 환위험에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엔화의 추가 약세와 양적완화로 인한 달러화 가치 하락을 고려한다면 환헤지된 펀드 상품 등을 골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정기자 hkim1@metroseoul.co.kr

게임업계 직원은 생존게임중

직원 30% 남긴 네오위즈 등 구조조정 살벌… '셧 다운제' 충격도

국내 온라인게임 업계가 구조조정 추풍풍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400명가량의 인원을 정리한 엔씨소프트에 이어 지난 11월 네오위즈게임즈가 2차 구조조정을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한때 600명가량이었던 직원이 200명 수준으로 줄었다.

여기에 업계 1위 넥슨마저 구조조정에 돌입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업계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다.

넥슨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조5275억원, 영업이익 674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4%, 25% 증가한 수치다.

매출과 흑자 규모를 갈수록 키우고 있는 회사까지 구조조정설에 휘말리다 보니 실적이 뛰어나지 않은 중견 게임사 직원이 느끼는 실업 공포감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CJ넷마블, 웹게임과 같은 기업이 대표적이다. 나름대로 탄탄한 라인업과 장기 비전을 보유하고 있으나 돈을 제일 잘 버는 맏집이 '지금은 위기'라며 허리띠를 바짝 조이는 기세를 보이자 크게 당황하는 눈치다.

이와 함께 해당 기업의 간판 역할을 했던 주요 멤버들이 속속 회사를 떠나고 있어 '다음은 누구일까?'라는 불안 고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주만 해도 컴투스 강희원 플보팀장, 네오위즈게임즈 강재은 플보팀장이 사직했고 윤복근 스마일게이트 대외협력실 팀장도 퇴사를 확정했다.

물론 모바일게임으로 대세가 전환되는 시점인 만큼 기존 인력 조정이 불가피한 점도 있지만 여성가족부가 주도하는 '셧다운제'와 같은 정부 규제가 이 같은 구조조정 도미노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게임업계 고위 임원은 "예전 동료를 새 회사에서 우연히 만나 겸연쩍어하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다. 비슷한 시기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동시에 재취업 시장에 몰려 일자리 얻기가 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용 안정을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가 정작 게임 규제를 방관하고 있어 취업 준비 중인 가장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빅뱅 모델 내세워 카톡 글로벌 공략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인기그룹 빅뱅을 내세워 글로벌 브랜드로의 도약을 노린다.

카카오톡 운영업체인 카카오는 빅뱅을 모델로 내세워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카카오톡 TV 광고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말부터 방영되는 카카오톡 TV 광고는 현류스타 빅뱅과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활약하는 현지 유명 모델이 함께 출연해 사용자에게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 측은 "일본 다음으로 모바일 시장 잠재력이 큰 곳을 찾아 나라별 현지 사정과 문화에 맞는 로컬라이징 전략으로 해외 진출을 적극 준비하고 있다"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의 TV 광고를 시작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카톡의 경쟁 브랜드인 '라인'은 '라인 게임' 출시 7개월 만에 누적 다운로드 1억 건을 돌파했다.

라인 게임은 16종(해외 출시 14종, 일본 출시 2종)으로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출시됐다.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게임은 '라인 버블' '라인 팝' '라인 버블' 등 총 9종이다.

/박성훈기자 zen@

온·오프대출 장점 모은 '현대 다이렉트론' 인기

요즘 온라인 대출과 오프라인 대출의 장점을 합쳐 탄생한 현대캐피탈 다이렉트론이 인기다. 인터넷·전화·스마트폰을 통해 대출절차가 진행돼 서류나 방문이 필요없어 30분 내 빠른 대출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대출 수준의 최저 5.75% 금리 및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 한도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도 조회만으로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아 여러 번을 조회해도 부담 없다.

문의 1588-5330

인쇄 2배 빠른 '오피스젯 프로X' 한국HP는 13일 서울 잉크젯 복합기·프린터 신제품 '오피스젯 프로X' 시리즈 4종을 공개했다. 이를 제품은 신기술인 'HP 페이지와이드 기술'을 적용, 레이저 프린터와 견줘 인쇄 속도가 2배로 빠르면서도 비용은 50% 절감할 수 있다. 분당 최고 70매까지 출력할 수 있고 변색·번짐 등이 없는 잉크를 사용해 물에 젖어도 번지지 않는다. /HP 제공

놀이공원·테마파크 '알바의 봄' 활짝

나들이의 계절에 맞춰 관련 구인 2배로 급증

동물원에서 사육사 하실 분, 호랑이 교관 모집.

외출하기 좋은 계절에 다가오면서 아르바이트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13일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 등록된 놀이공원·테마파크 및 여행·캠핑 구직공고는 각각 805건과 363건으로 비수기보다 배 이상 급증했다.

매점과 매표소 근무 등의 일반적인 업무부터 동물 사육사, 읽기 사진 찍어주기, 이벤트 진행자, 수학여행 카리스마 교관, 레크리에이션 지도사 등 봄을 만끽하면서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꿀알바들도 속속 등장했다.

알바몬 사업본부 연수정 과장은 "대부분의 테마파크·놀이공원은 이벤트 업체 등의 대행사를 통해 알바생을 모집한다"면서 "행사의 수금 절차 때문에 알바생이 급여를 늦게 받는 경우가 많아 급여지급일을 꼭 정하고 시작하라"고 당부했다.

/정윤희기자 ubel@

'봄맞이 꿀알바' 주의사항

① 대행사에서 단기 알바를 할 경우 급여 받는 날짜를 정하고 일을 시작하라

② 유령 회사가 아닌지 확인하고 최소 2개 이상의 담당자 연락처를 받아둬라

③ 알바 포털 또는 알바생 커뮤니티에서 관심 직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라

한국 스마트폰 사용률 세계 최고

이통 가입자의 67% 달해 월평균 요금은 5만5000원

우리나라 국민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13일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닐슨이 우리나라와 미국·중국·호주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내놓은 '이동통신 소비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67%였다. 이는 중국(66%), 호주(65%), 이탈리아(62%), 영국(61%), 미국(53%) 등보다 높은 수준이다.

높은 스마트폰 사용률과 달리 국내의 일반 휴대전화(피처폰) 사용자는 전체의 23%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적었다.

한편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의 월평균 요금은 5만5000원으로 미국(약 10만2000원)과 호주(약 5만6000원)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영국과 이탈리아의 스마트폰 이용자 월평균 요금은 각각 약 4만1000원과 3만1000원으로 국내 이동통신 요금을 국민소득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윤희기자

분양단신

포천 오피스원룸 포레스빌

경기 북부지역 포천 내 공구유통단지 약 2만3700㎡의 24개 동 519개 점포 중 127개 오피스 원룸 포레스빌을 분양한다.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부터 고정벽 가구까지 풀옵션이고 개별난방 시스템이다.

포레스빌은 분양평수 9평, 실평수 6.5평으로 분양금액은 한 채당 평균 5900만원으로 책정됐다.

교통 여건도 좋다. 단지 앞 도로에 교차로가 생기고 오는 2015년 준공 예정인 서울~포천 민자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있다. 포천공구유통단지 공구상가도 회사 보유분 특별 분양을 하고 있다.

문의 031)541-2754

화정역 풀옵션 미니스트리

일산 화정역 1분 거리에 위치한 '미니스트리'가 분양 중이다. 전 세대가 호텔식 풀옵션으로 벽걸이 TV, 삼성 노트북, 드럼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청소기, 전기쿡탑, 1~2평 소파, 책상, 의자, 붙박이장, 디지털도어록 등 몸만 들어와서 살 수 있게 만든 신개념 호텔식 오피스텔이다.

총 분양가 6600만원대부터 실투자금 3000만원대 소액 투자로 월50만원 이상 임대 수익을 누릴 수 있다. 시행사에서 관리 운영하며 연12% 수익증서를 발행하고 있다.

문의 1599-5057

구월보금자리 1113세대

인천도시공사는 구월보금자리 주택지구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602세대와 분납임대 아파트 511세대 등 총 1113세대를 공급한다.

오는 28일 공급 공고하고, 29일에는 견본주택을 개관해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청약 일정은 4월 8일에 일반 공급 1·2순위자를 대상으로 청약 접수를 받고 9일에는 3순위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콜센터(032-469-4700)로 문의하면 된다.

재형저축 열풍 옆 재형펀드 "춥다"

일부 상품 설정액 '0'원…1억 넘긴 펀드 고작 4개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붐에 편승해 일제히 재형펀드를 출시한 증권사들의 실적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탁고(설정액)는 재형저축의 5% 수준에 그쳤다. 초반 기세를 잡지 못해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

13일 펀드평가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12일 기준으로 증권사에서 판매한 재형저축펀드 수탁고는 약 23억6000만원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고객들이 납입한 자금이 이 정도다. 같은 날 은행들이 출시한 재형저축 조립금이 약 438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5.2%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나마 가장 많이 팔린 재형펀드인 '한국밸류10년투자재형증권투자신탁'의 설정액이 13억3900만원으로 전체 설정액의 절반 이상을 쓸어갔다. 덕분에 나머지 56개 펀드 중 설정액 1억원을 넘긴 펀드는 4개뿐이었다. 심지어 '미래에셋재형코리아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 1' 등 16개 펀드는 설정액이 0원이었다.

'재형'이란 유사한 금융 상품으로 출시됐지만 과열 경쟁 우려까지 나올 정도로 자금이 몰리는 재형저축에 비하면, 재형펀드는 금융소비자들에게 "박대"를 받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비과세 혜택과 가입 대상 등은 재형저축과 동일하지만 원리금 보장이 안 되고 수익률을 명확히 제시할 수 없는 펀드 상품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증권사 관계자는 "재형펀드는 대부분 채권형이라 위험도가 높지는 않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하겠다는 고객층은 아무래도 안정성이 높은 은행권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고 말했다.

특히 재형펀드라도 안정성에 방점을 둔 채권형·채권혼합형과는 달리 주식혼합형은 최근 증시 상황이 좋지 않은 탓에 수익을 기대기 위연것도 금융소비자들에게 재형펀드가 외면을 받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김자실기자 azyhand@

20대 고용률 55% 역대 최저

고용비용 감축 분위기에 주당근로시간 41.4 '최저'

국내 고용시장에 또다시 먹구름이 끼고 있다.

20대 고용률이 역대 최저치로 추락했고 주당 근로시간 역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취업자는 2398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1000명(0.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 규모는 2010년 2월의 12만5000명 이후 3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특히 20대 고용 여건은 악화일로다. 2월 20대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5만9000명 줄었다. 20대 취업자 감소세는 벌써 10개월째다.

주 5일제 확대와 함께 장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근로시간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으로 지난해 상용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41.4시간에 그쳐 관련 통계가 있는 1999년 이후 최저였다. 지난해 월평균 근로시간도 179.9시간으로 처음으로 170시간대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들이 고용은 물론 휴일, 야간 연장근무 등도 줄여 비용 감축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은 당분간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국렬기자

기본급 또 올려주는 LG·삼성전자

LG전자와 삼성전자가 기본급을 2년 연속 인상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올해 기본급을 7.0% 올리기로 노사 합의했다. 지난해 6.0% 인상한 데 이어 2년 연속 기본급을 올린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LG전자가 지난 1월 3년 만에 처음으로 성과급을 지급할 정도로 지난해 실적이 좋았다"면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기본급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라이벌 삼성전자는 기본급을 5.5%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4% 인상한 데 이어 1.5%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삼성은 경영 성과에 따라 연봉의 최대 50%를 초과이익분배금으로 지급하는 성과보상시스템을 시행해 통상 기본급 인상률은 높지 않다. /장윤희기자 unique@

"저 이탈리아에서 왔어요" 13일 롯데마트는 국내에 처음 이탈리아산 그린 키위를 선보였다. 이 키위는 한-EU FTA 발효로 뉴질랜드산 키위보다 15% 가량 저렴하며 15일부터 롯데마트 전 점에서 1kg/1팩을 5400원에 판매한다. /연합뉴스

세계 시선 끈 '웰니스 강원'

휘닉스파크 등 참여 사업 싱가포르 '나타스 ' 참가

지식경제부의 강원선도사업 프로젝트인 '웰니스(웰빙+피트니스) 강원'이 국제관광박람회 '나타스 홀리데이즈 2013'에 참가해 강원도 관광의 매력을 알렸다.

최근 싱가포르 엑스포몰에서 개최된 이번 박람회에서 웰니스 강원은 강원권 산림자원을 활용한 리조트 상품을 홍보하는 한편 현지 여행사와 한국 여행상품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매년 2월과 8월 두 차례 개최되는 나타스 홀리데이즈는 170여 개 이상의 관련 업체와 6~7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싱가포르 최대 관광 박람회로 지난해에는 제주관광공사가 참가해 해외 관광객 유치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휘닉스파크, 알펜시아리조트, 둔내자연휴양림, 메디투어파트너스가 참여 중인 웰니스 강원은 휴양·건강·레저가 결합된 관광 상품 개발과 해외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 /김보람기자

봄은 힐링…떠나보면 알거야

고로쇠·걷기·푸드·산수유꽃…4색 테마의 지역축제 속으로!

초록 잎들이 반기는 봄은 '힐링 여행'을 떠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다. 이른 봄부터 펼쳐지고 있는 축제의 현장으로 들어가보자.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먹거리와 아름다운 풍경을 한 번에 누릴 지역 축제들이 다양하다.

강원도 인제군은 16일부터 이틀간 상남면 미산마을 산림문화휴양관에서 제5회 미산계곡 방대산 고로쇠축제를 개최한다. 강원도의 청정한 자연환경 속에서 골다공증과 면역력 강화에 효과가 있는 고로쇠 수액을 직접 채취, 시음할 수 있다.

전국 산수유 생산량의 38%를 담당하는 경북 의성에서는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산수유 꽃 축제'를 연다. 아름다운 꽃으로 수놓인 사곡면 화전리 일대를 감상하는 기쁨이 올해 특별히 설치된 야간 조명으로 밤 산책의 낭만을 더했다.

전남 완도군에서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느림의 걷기 축제'가 열린다.

국제슬로시티연맹이 공식 인증한 세계 슬로길 1호 11개 코스(42.195km)에서 느림의 즐거움과 미학을 마음껏 느낄 수 있다. 이밖에도 명사와 함께 걷기-영화 '서편제' 재연하기-느림보우체통 편지 쓰기-느림낭만 콘서트 등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행사가 준비됐다.

전남 화순군에서는 특별한 힐링 음식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해보자.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제1회 화순힐링푸드축제'는 '건강한 맛을 담다'라는 슬로건 아래 개발 음식, 향토 음식, 다문화 음식 등 다양한 요리를 전시, 판매하고 힐링푸드 요리교실, 건강체험관 등 각종 이벤트를 마련했다. /권보람기자 kwon@metroseoul.co.kr

흑도 백도 아닌 분홍색 연기 왜?

여성 시위대 '남성 추기경만의 콘클라베' 항의
"굴뚝 지켜볼 필요없어요" 문자서비스도 등장

새 교황 선출을 앞두고 전 세계의 눈이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의 굴뚝에 쏠리고 있다. 교황이 선출되면 추기경단이 투표용지를 태워 굴뚝으로 흰 연기를 피워올리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 가톨릭 단체가 교황이 선출되면 문자나 e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마련해 화제다.

최근 가톨릭 대학생단체 'FOCUS'는 콘클라베(추기경 비밀회의)에서 새 교황이 결정되면 가입자들에게 바로 알려주기 위해 홈페이지(www.popealarm.com)를 개설했다.

이들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연기가 피어오를 때 당신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홍보했다. 또 "잠을 자도 되고 바쁜 일을 해도 됩니다. 흰 연기가 피어오르자마자 바로 연락받을 수 있도록 지금 가입하세요!"라며 이용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이트에는 벌써 4만 명 이상 가입했다.

한편 12일 바티칸에서는 분홍색 연기가 피어올라 눈길을 끌었다.

남성 추기경들의 전유물인 콘클라베에 항의하고 가톨릭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분홍색 연기를 피운 것이다. 시위대는 분홍색 옷을 입고 "여성을 성직에 임명하라"는 팻말도 들었다.

'여성사제서품회의'의 에린 사이즈한나 대표는 "지금의 추기경단은 교회를 추문과 학대, 성차별 단앙에 휘청거리게 했다"고 비판했다.

가톨릭 교회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사제 서품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예수가 자신의 사도로 남성만을 뽑았다는 이유에서다.

콘클라베 개막 첫날인 이날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서는 교황 선출 무산을 알리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제266대 교황으로 선출되려면 콘클라베 참석자의 3분의 2인 77명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교황청 주변에서는 지난 100년간 콘클라베가 5일 넘게 지속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 비춰 이번 주말 이전에는 차기 교황이 선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서 검은색 연기가 피어 오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화성에 생명체 있었다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 결정적 흔적 처음 발견

영화 'ET'나 '맨 인 블랙'에서처럼 외계 생명체를 실제로 만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가 화성에서 수거한 암석 샘플을 분석한 결과 화성에 한때 원초적인 생명체가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나왔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 중 일부인 산소와 수소, 탄소, 질소, 인, 황 등이 발견됐다는 설명이다.

지구 밖에서 생명체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의 행성이 존재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이클 메이어 나사 화성탐사프로그램 수석연구원은 "이번 탐사의 목적은 화성 환경이 생명체의 서식에 적합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대답은 '그렇다(yes)'"고 말했다.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있는 지구 크기 행성의 수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국 펜스테이트대학 과학자들은 천체물리학 저널에 실린 연구 보고서에서 "가장 가까운 작은 별 10개 주위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갖춘 행성을 4개쯤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런 추정치는 보수적인 것일 뿐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행성들의 평균 거리는 약 7광년으로 기존 추정치의 절반 정도라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새로운 계산 방식을 사용한 결과 생명체 서식 가능 영역이 기존 추정치보다 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지구만 한 행성이 생각보다 훨씬 흔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계 생명체 추적에 좋은 징조"라고 강조했다.

/이국명기자 kmlee@

'장애인 성 도우미' 뜨거운 佛

정부, 합법화 반대에 인권단체 강력 반발

프랑스 국가자문윤리위원회(CCNE)가 12일(현지시간) 장애인을 위한 '성 도우미' 제도 합법화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CCNE는 "장애인을 위한 성 도우미 제도가 자칫 전문적으로 몸을 파는 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성 도우미와 매춘의 경계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CCNE의 입장은 프랑스 장애인 인권 단체들의 성 도우미 제도 합법화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장애인 인권 단체들은 이미 성 도우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덴마크·네덜란드·스위스의 사례를 들면서 성 도우미 제도 합법화는 물론, 국가적인 재정 지원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전신이 마비된 한 남성이 성 치료사와의 관계를 통해 성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담은 영화 '세션: 이 남자가 사랑하는 법'이 장애인 성 도우미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한 것도 이들 단체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다.

/조선미기자

마두로 임시대통령 "어둠의 세력이 차베스 독살"

베네수엘라 정부가 최근 사망한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독살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임시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정부의 TV방송인 '텔레수르'에서 "사령관 차베스를 어둠의 세력이 독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며 외국 과학자들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마두로는 "미국에는 병을 만들어내는 연구소들이 있다"며 음모론을 펼쳤다.

마두로는 차베스의 죽음을 2004년 이스라엘 정보 당국에 의해 독살 의혹을 받은 야세르 아라파트 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비교하기도 했다.

외부 세력이 모종의 기술로 암을 유발했다는 의혹은 생전 차베스가 주장한 것이기도 하다. 그는 2011년 자신을 비롯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 남미 좌파 지도자들이 잇따라 암 수술을 받게 되자 미국이 암을 퍼뜨리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독살 의혹을 꺼내 든 배경에는 다음달 치러지는 대통령 재선거 때문이다. 선거를 앞두고 서방 국가들의 위협을 과장해 대중의 두려움을 키우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조선미기자 seonmi@

today metro global 지금 클릭! metroseoul.co.kr

칠레 국민들 '3월의 보너스' 들썩

중고폰 샀더니 분실한 내 전화기

명문대 강의 인터넷서 무료 수강

star bag

'금 나와라' 주연 · 1인2역

한지혜가 MBC 새드라마 '금 나와라 뚝딱'으로 한번 더 주말 안방극장의 여왕을 노린다.

소속사는 13일 "이 드라마에서 보석디자이너를 꿈꾸는 노점상 몽희와 재벌가 며느리 유나로 1인 2역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해 말 방송됐던 MBC 주말특별기획 '메이퀸'에서 역경과 고난을 딛고 꿈을 이뤄가는 여주인공 천해주 역을 열연했다.

새 싱글 '온리 원' 국내 발매

기수 보아의 '온리 원' 일본판을 가져 국내로 다시 유턴했다.

지난해 발표한 7집 타이틀곡인 '온리 원'은 지난달 27일 일본어 버전 싱글로 현지에 출시된 데 이어 13일 다시 국내에서 CD와 CD+DVD 두 가지 버전으로 재발매됐다. DVD에는 '온리 원'과 '더 섀도'의 뮤직비디오와 뮤직비디오 메이킹 영상이 수록됐다.

교통사고 본구 촬영 투혼

연기자 이성재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소속사는 13일 "이성재가 다음달부터 방송될 MBC 새 월화극 '구가의 서' 촬영을 위해 이달 초 제주도에 갔다가 부편하옵주 차량에 들이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응급 치료 후 곧바로 촬영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10개월만에 컴백…21일 출격

인피니트가 개별 활동을 끝내고 10개월 만에 완전체로 복귀한다.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는 13일 홈페이지에 '2013 03 21'이란 문구를 올리며 컴백을 공식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추격자'를 타이틀곡으로 내세운 세 번째 미니앨범 '인피니타이즈'를 발표한 이후 개인 활동에 주력해왔다.

겉은 까칠 속은 따뜻… "오진락과 닮았죠"

'이웃집 꽃미남'으로 복귀 신고식 김지훈

원조 '꽃미남' 김지훈(32)이 제대 후 복귀 신고식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지난달 말 화제 속에 종영한 tvN '이웃집 꽃미남'에서 툴툴 작가 오진락을 열연한 그는 "여유와 자신감이 생겼다"면서 환하게 웃었다.

완벽한 꽃미남에서 이미지 변신 이 작품 만난 건 운명…여유 생겨 중·고생 팬들도 부쩍 많아졌어요

놀이터 같았던 촬영장

군에 다녀오기 전까지 '별을 따다줘' '연애결혼' 등을 통해 주로 완벽한 꽃미남의 모습을 보여왔지만, 이번 드라마에선 인간적인 느낌을 가미해 변신을 꾀했다. 까칠하고 고집불통인 성격에 어설픈 초보 웹툰 작가이면서도 은둔형 외톨이 고독미(박신혜)에게는 한없이 순정적인 모습을 연기해 여성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시청률은 기대에 살짝 미치지 못했지만 어린 팬들이 부쩍 많아져서 기분이 좋아요. 트위터 팔로우에 중·고등학생 팬들이 늘어난 것으로 드라마의 인기를 피부로 체감하고 있죠. 입대 전까진 주로 주말극이나 일일극에 해서 팬 연령대가 높았는데, 10년 전 가요 프로그램 VJ를 했을 때가 떠오르네요. 하하하."

극중 웹툰 작가의 꿈을 위해 재벌 2세임을 숨기고 동네 백수처럼 살아가는 독특한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다양한 트레이닝 패션을 선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꾸미지 않아도 멋있게 보이기 위해 트레이닝복의 70~80%를 직접 구입했다"고 숨은 노력을 설명했다.

배역이 실제 모습과 꼭 닮았다. 평소 짝사랑만 하는 취향은 아니지만, 무심하면서도 챙겨주는 성격이 비슷하다. "친한 동생들에게 겉으론 살갑게 대하진 않지만 속마음은 정이 넘친다"면서 넉살 좋게 말했다.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특유의 성격 덕에 촬영장은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연기자 중 가장 연장자로서 극중 삼각 사랑을 이루는 윤시윤·박신혜와 각각 다섯 살과 아홉 살 차이가 나지만 친구처럼 지냈다.

"젊은 배우 6명이 주축이 된 작품이라 촬영장은 또래들과 노는 놀이터 같았어요. 시윤이와 신혜와는 처음 만나자마자 금세 친해졌죠. 사실 연예계가 거칠고 힘들어 때 타기 십상인데 두 친구 [illegible] 연기에도 뛰어났고요. 제가 할 욕심이 많은데 늘 주어진 것보다 많은 걸 하려는 성격이라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군생활 계기 연기인생 2막

국군 홍보지원대 복무를 마치고 지난해 7월 제대한 김지훈은 이번 드라마가 운명 같았던 작품이라고 이야기했다. 원하는 작품을 기다리느라 조바심이 났지만 여러 출연 제의를 거절하던 중에 '이웃집 꽃미남' 출연 제의를 받았고, 단 사흘 만에 일사천리로 캐스팅이 이뤄져서다. "제대하고 나서 몇 달을 놀다 보면 불안감이 들기 마련인데 좋은 작품을 만날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다"고 귀띔했다.

특히 2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털어놨다. "군 생활을 하다 보면 자유가 없잖아요. 군대를 계기로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기게 됐어요. 매니저나 스타일리스트 등 공기처럼 존재하면서 도와준 주변 사람들을 더 고마워하게 됐고, 무엇보다 연기를 떠나 일하는 [illegible] 새삼 깨달았죠. 더군다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버는 거잖아요."

박효신·미쓰라진·유건 등 좋은 동기 및 후배들을 만난 것도 군대에서 얻은 큰 자산이다. 평소 성격처럼 군에서도 군기를 잡기보단 친구처럼 즐겁게 지냈다.

"효신이는 정말 매번 놀랄 만큼 노래를 잘 불러요. 미쓰라진과 유건은 각각 가요계의 대부들이죠. 하하하. 어찌면 아는 사람이 연기자뿐이었는데 군에서 가요계 인맥들을 얻었어요. 함께 고생한 만큼 우정이 각별해서 제대 후에도 종종 연락하죠."

군을 계기로 연기 인생 2막을 열었다는 그는 차기작도 조바심내지 않고 신중하게 고를 생각이다. "이번 작품을 계기로 캐릭터를 내 색깔로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면서 "당분간 책도 보고 운동도 하면서 지내다 또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탁진하기자 tak5427@metroseoul.co.kr

사진/서보형(라운드테이블) 디자인/양성혁

'위대한 개츠비' 칸 영화제 문 연다

디카프리오 주연 '백만장자 변신'… 3D 상영예정

지난주 내한했던 할리우드 톱스타 리어나도 디카프리오가 베일 속 백만장자로 변신해 프랑스 칸을 찾는다.

전 세계인들의 영화 축제인 제66회 칸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올해 개막작으로 디카프리오 주연의 '위대한 개츠비'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영화제는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열리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장편 경쟁 부문의 심사위원장으로 나선다.

21일 개봉될 '장고: 분노의 추적자'에서 남부의 악덕 노예상을 열연했던 디카프리오는 출세작 '로미오와 줄리엣'의 명콤비 바즈 루어만 감독과 다시 손잡고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원작 소설로 유명한 '개츠비'의 3D 영화화에 도전했다.

앞서 로버트 레드퍼드 등이 연기했던 극중 개츠비는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던 옛 연인 데이지를 되찾기 위해 매일 밤 파티를 여는 백만장자다. 불우했던 과거를 돈과 사랑으로 보상받으려 하지만 결국은 파국에 휘말리는 인물로, 디카프리오의 카리스마 넘치면서도 섬세한 연기가 돋보일 전망이다.

사랑 그 이상을 원하는 속물 데이지 역은 '월 스트리트: 머니 네버 슬립스'와 '드라이브'에서 청초한 미모를 뽐냈던 캐리 멀리건이 맡았고, 이들을 관찰하는 개츠비의 친구 닉 역은 '스파이더맨'의 토비 맥과이어가 연기했다.

국내에서는 칸보다 약 1주일여 앞선 5월 9일에 개봉된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wind8686@naver.com

판타지물 '뷰티풀 크리처스' 내달 개봉

美 베스트셀러 1위 원작… 마법 소녀의 사랑·도전 그려

마법 소녀의 사랑과 도전을 그린 판타지 로맨스 '뷰티풀 크리처스'가 다음달 18일 국내에 상륙한다.

이 영화는 2009년 미국의 권위 있는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던 같은 제목의 소설이 원작이다. 아마존이 꼽은 '올해의 틴 북(Teen Book)'에서도 1위를 차지해 청소년 독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확인했다.

마녀의 운명을 타고난 열여섯 살 소녀 리나가 빛과 어둠의 대결에 휘말린다는 내용으로, 세내거 앨리스 엥글레르트가 주인공을 맡아 청순하면서도 뻔하지 않게 카리스마 넘치는 매력을 뽐낸다.

중견 연기파들의 합류도 관객들의 구미를 자극한다. '데미지'의 제레미 아이언스와 '센스 앤 센서빌리티'의 엠마 톰슨이 각각 리나의 삼촌 메이컨 레이븐우드와 리나를 어둠의 길로 인도하는 세라핀으로 출연해 무게감을 과시한다. /조성준기자

영화 '신세계' 프랑스·독일에도 배급권 판매

국내에서 흥행몰이 중인 영화 '신세계'가 북미에 이어 프랑스와 독일에도 배급권이 판매됐다고 해외 배급을 맡고 있는 화인컷이 13일 밝혔다.

화인컷에 따르면 배급권을 구입한 회사 프랑스 TF1의 책임자 로랑 캄파뉴는 "연출자인 박훈정 감독은 새로운 웰메이드 범죄 드라마 영화를 완성했다"고 평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배급권을 구입한 MFA 크리스찬 마안케 사장도 "한순간도 지루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보여주며 대단히 오리지널한 이야기 구조와 훌륭한 배우들이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호평했다.

Ci은 부산이다

사직야구장에서 목이 터져라 부산갈매기를 외쳤습니다
자갈치시장 어머니들의 요란한 소리에 어깨가 들썩입니다
낭만이 가득한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그대와 함께 합니다
부산과 함께 울고 웃고 살아가는 시원–
부산은 시원입니다
시원은 부산입니다

천연원료 토마틴으로
아침이 상쾌한 시원

(자매품)

연봉 1억, '보험퀸' 에게 듣는다!

차티스손해보험 7년차 TM 이용희씨에게 듣는 연령별, 건강별 [보험선택의 기준]

'올해의 영업실적왕' 5회 비법공개

20~60대 연령층 1:1 상담전화 통해

연령에 따라 건강고민 한 눈에 보여

차티스손해보험의 7년차 TM 이용희씨(35세). '올해의 영업실적왕'을 5회나 기록한 베테랑 TM이다. 평소 활발하고 싹싹한 성격이 고객 전화상담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하루 전화상담은 무려 100여 통. 연령대도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다. 때로는 언니, 우리 엄마, 어머님 같아 공감 가는 얘기들이 많다는 그녀. 다년간 전화상담을 통한 다양한 고객들의 목소리와 그녀만의 연령별, 건강별 보험선택 기준을 들어본다.

40~50대 큰병 대비가 철저해야죠

주로 40~50대 고객분들은 자영업자 분들이나 직장인들, 주부님들이 많으세요. 남편이나 아내 건강 걱정하시며 꼼꼼하게 보장을 물어보시구요. 하나의 상품을 문의하시다가 여러 가지 상품을 동시에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또 요즘은 보험료 부담 때문인지 다른 보험사 상품들과 조목조목 비교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에게 상담을 받으시고는 수화기 너머로 든든해 하시는 고객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보람도 느끼고요.

〈큰병이기는보험IV〉으로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대비

40~50대 고객분들에게는 〈큰병이기는보험IV〉를 권해 드려요.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같은 큰병엔 선택계약으로 진단비를 각각 보장해 드려요. 남자 분들의 경우엔 잦은 야근이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같은 큰병 대비를 본인들도 원하세요. 주로 남자분들은 본인 건강 걱정은 물론이고 혹시나 큰일 생겨 가족만 남게 될까봐 걱정 많이 하시죠. 그래서 40~50대 가장이라면 혹시나 모를 큰일에도 철저하게 대비하시라고 선택계약으로 사망보장도 함께 설계해 드려요.

불경기 탓, 보장도 좋지만 실속 있는 보험로 찾는 분 늘어

최근 불황 탓에 아파도 수술을 미루거나 그냥 참는 사람들이 많다는 뉴스가 보도된 후 상담전화가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땐 보험료 한 푼도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암 같은 큰병을 보장하는 보험들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거든요.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반드시 필요한 것이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불경기인 요즘에 〈큰병이기는보험IV〉가 사랑받는 것 같아요. 가입하시는 분들도 체크가 따로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50~60대 치매 대비 하셔야죠

주로 우리 어머니 아버님 연세이신 분들은 치매 걱정이 제일 많으세요. 특히 주변 지인분들 중에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면 치매가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또 암 같은 큰병 고민도 함께 하시죠.

치매, 큰병 대비도 〈명품부모님보험〉으로

그래서 50~60대에는 〈명품부모님보험〉을 추천해 드려요. 우리 부모님들 가장 걱정 많으신 치매 고민! 그게 다 가족들이 짊어져야 할 간병비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명품부모님보험〉은 선택 계약으로 치매간병비를 보장해 드리니까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구요. (중증치매 상태로 진단 확정 후,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된 경우 최초 1회한) 여기에, 부모님들 또 다른 큰병걱정 많으시잖아요. 〈명품부모님보험〉를 통해 선택계약으로 암은 물론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꼼꼼하게 챙겨드리니까 큰병 대비도 같이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나이들어 약해지는 눈 귀 관련질환으로 인한 수술비를 선택계약인 시청각질환수술비로 챙겨 드리죠.

따로따로 가입 마시고 한번에 보장받으세요

최근에 치매와 관련해서 뉴스나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치매도 보장하면서 또 다른 것들도 보장하는지. 그런데 말씀 나눠보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암 보험, 사망보험, 노년질환 보험들 따로따로 가입하고 계시더라고요. 따로 가입하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보험료도 비싸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명품부모님보험〉 하나면 모두 다 보장 받을 수 있어요. 한번에 종합적으로 보장해주니까 보험료도 그만큼 실속 있고요. 또 연세 때문에 가입 안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당뇨나 고혈압 약을 드셔도 꾸준히 관리한 환자라면 상담 후 가입이 가능하니 아직도 망설이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이렇듯 이용희씨가 지금껏 차티스 TM으로서 전화상담을 한 고객수만 따져 본다면 2만여 통이 넘는다. 고객들과 상담전화를 하다보면 한결 같이 자신의 건강대비뿐만 아니라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엄마나 아빠지, 시부모님 건강을 챙기는 모습에 자신도 왠지 모를 뿌듯함이 생긴다는 그녀다.

연령이나 건강별로 준비해야하는 건강대비

이제는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어느 연령대인지 감이 온다는 이용희씨. 고객들과의 1:1 전화상담을 통해 연령대별 건강별 고민들과 그 대비책이 한눈에 그려지는 베테랑이다. 그녀는 고객분들의 건강 고민이 제각각 나뉜 듯 해도, 연령이나 건강별로 원하시는 보장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고 한다. 그만큼 각 연령별로 준비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강대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들과 건강대비 상담에 매진하는 그녀가 늘 당부하는 한마디가 있다고 한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보험가입에 대한 강요나 아무런 부담 주지 않으니, 부담없이 전화부터 하세요. 저희들이 아는 한 연령대에 건강에 꼭 맞는 건강대비책을 많이 알려 드리는 거니까요." 오늘도 그녀는 1:1 전화상담을 통해 때론 친구처럼 때론 싹싹한 며느리처럼 조곤조곤 차티스의 건강대비책을 제시한다.

오상진 방송 컴백

'땡큐'로 시청자들 만나

오상진 전 MBC 아나운서가 1년여 만에 방송으로 돌아온다.

7년간 간판 아나운서로 활약했던 MBC에서 지난달 퇴사한 그는 29일 방송될 SBS '땡큐'로 오랜만에 시청자들과 만난다.

지난해 파업 참여로 진행하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당한 뒤 최근까지도 마음 고생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진 그가 경쟁사 SBS로 복귀할 이번 방송에서 전 직장과 관련해 어떤 심경을 털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녹화는 다음주 이뤄질 예정이다.

다양한 분야의 유명 인사들이 함께 여행하며 인생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땡큐'엔 그동안 국내 메이저리거 1호 박찬호와 혜민 스님, 민화기 이현세, 사진작가 김중만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한편 앞서 프리랜서를 선언한 오상진은 최근 배우 유승룡 등이 소속된 프레인TPC와 계약했고 휴식을 취하며 향후 활동 방향을 구상하겠다고 밝혔다. /유순호기자

'셰프돌' 페이 "댄싱돌 추가요"

'마세코 셀럽' 이어 '댄싱스타3'서도 우승 도전

미쓰에이의 페이가 '금요일 밤의 여인'으로 주목받으면서 팀 내 새로운 에이스를 노린다.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 방송되는 케이블 채널 올리브 '마스터셰프 코리아 셀러브리티'(이하 '마세코 셀럽')에 출연 중인 페이는 15일부터 같은 시간 생방송되는 MBC '댄싱 위드 더 스타 3'에도 모습을 보인다.

평소 조용한 성격의 맏언니이지만, 이 같은 활동의 맹활약을 바탕삼아 막내 수지에 이어 팀의 간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는 '마세코 셀럽'에서 출중한 요리 실력으로 '셰프돌'이란 타이틀을 얻었다. 1·2회 방송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해 강레오 심사위원으로부터 "당장 이태원에 차려도 되겠다"는 극찬을 받았다.

페이의 요리 실력은 멤버들과 소속사 직원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하다. 수지는 지난해 10월 KBS2 '해피투게더 시즌3' 야간매점에서 페이에게 전수받은 '토달볶'(토마토와 달걀을 볶은 요리)을 선보여 11호 메뉴에 선정됐다. '마세코 셀럽' 제작진은 "중식에 특히 강한 면모를 보이지만, 모든 요리에 타고난 재능을 보인다"며 "요리를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놀랍다"고 말했다.

한편 '댄싱돌'의 타이틀도 동시에 거머쥐겠다는 각오다. 중국 베이징 무용학교 출신답게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우승을 꿈꾼다. 앞서 미쓰에이 무대에서도 저조천수를 연상케 하는 고난도 안무를 선보이곤 했다.

페이는 지난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지난 시즌 준우승한) 소녀시대 효연이 지난 시즌 잘해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우승에 대한 강한 열의를 나타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탤런트 박시후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가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월동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은 후 차를 타고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시후·고소인 A씨 거짓말 탐지기 조사

성폭행 여부를 놓고 진흙탕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박시후와 고소인 A씨 등 사건 당사자들이 결국 거짓말 탐지기 앞에 집합했다.

A씨는 13일 오전 8시45분 베이지색 목도리로 얼굴을 가리고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채 신월동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박시후는 9시20분쯤 검은색 밴트 차림으로 취재진을 피해 본관 옆 건물로 들어갔다. 사건 당일 함께 있었던 박시후의 후배 김모씨는 오후에 조사를 받았다.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진행된 이날 조사 결과는 1주일 후쯤 나올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는 법적인 증거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정황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에프엑스

K-팝 스타들 텍사스의 밤 달궜다

더 긱스·에프엑스 등 합동공연 "다양한 장르 음악 주목"

한국 대표 아이돌 그룹과 밴드들이 K-팝의 무한한 매력을 세계 음악계에 알렸다.

에프엑스·국카스텐·노브레인·갤럭시익스프레스·이승열·장차식·더 긱스 등은 12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엘리시움에서 합동 공연을 개최했다. 북미 최대 음악 마켓인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XSW)가 주관하는 'K-팝 나이트 아웃'이란 제목의 쇼케이스 무대로 이들은 펑크록과 일렉트로닉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700여 명의 전 세계 음악 관계자들을 매료시켰다.

하드코어 밴드인 더 긱스의 무대를 시작으로 국카스텐·갤럭시익스프레스 등 각 팀은 40여 분씩 공연하며 한국 특유의 진수를 선사했다. 특히 노브레인의 신곡 '소주 한잔' 무대 때에는 국내 주류업체가 관객들에게 소주를 무상으로 제공해 공연장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렸다.

쇼케이스의 대미는 국내 대표 아이돌 그룹 에프엑스가 장식했다. '일렉트로닉 쇼크' '핫 서머' '피노키오' 등 독특한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과 깜찍한 외모로 눈과 귀를 붙잡았다. 쇼케이스에는 음악 관계자 외에 일반 관객은 입장할 수 없었음에도 공연장 주위에는 수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에프엑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에프엑스가 2010년 프랑스 음악마켓 미뎀에 참가한 이후 유럽에 K-팝 진출이 본격적으로 시작 됐던 것처럼 이번 쇼케이스가 북미 K-팝 열풍의 도화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브레인은 "직접 와서 보니 K-팝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고 세계 시장의 벽이 높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쇼케이스를 통해 한국 밴드도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공연 소감을 밝혔다.

현지 주요 음악 관계자들도 이번 쇼케이스를 지켜본 후 미국 시장 내에 K-팝이 더욱 확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행사의 총감독 제임스 마이너는 "미국인들은 K-팝을 싸이나 현아 2NE1과 같은 아이돌 그룹의 음악으로 인지하고 있지만 SXSW는 한국의 다양한 음악과 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빌보드 편집장 빌 워드는 "미뎀에 이어 'SXSW'에서 K-팝 쇼케이스를 보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걸 느낀다. 앞으로 더 많은 무대에서 K-팝의 다양한 장르를 접하고 싶다"고 관람 소감을 전했다.

이번 쇼케이스는 문화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개최한 것으로 K-팝의 해외 진출 지역 확장과 장르 다양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유순호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박시연 포함 3명 기소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사진위부터)가 불구속 기소됐다. 현영은 약식기소됐다.

서울 강남 일대 병원의 프로포폴 불법투여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13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 외에 산부인과 의사 A씨 등 의사 2명과 상습 투약자 이모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시연 등은 미용 시술과 통증 치료를 빙자해 2년간 수십 회에서 많게는 100여 회까지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가 있다. 상대적으로 투약 빈도 기간 등이 적었던 현영 등에 대해서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한편 박시연과 장미인애 측은 각각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의 처방에 따랐을 뿐"이라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탁진현기자 tak0427@

츠루가 성 옆 벚꽃숲에선 술마저 향긋

전통이 살아 숨 쉬는 후쿠시마현의 아이즈와카마츠시는 일본 특유의 서정적인 거리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관광지다.

시의 상징인 츠루가 성의 내부는 박물관으로 구성돼 있고 주변에 벚나무가 많이 늘어선 경치가 으뜸으로 꼽힌다. 5층 높이의 텐슈가쿠(천수각) 최상층에서 내려다 보면 주변의 시가지와 산을 한눈에 만끽할 수 있다.

아름다운 경치와 더불어 즐길 향긋한 술과 음식도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다. 시의 특산품인 일본 전통주는 은은한 단맛의 여운으로 여성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시내에는 9개의 구라모토(양조장)가 있어, 주조시설을 직접 견학하거나 시음할 수도 있다.

◆미식가 유혹하는 소스카츠동

현지인들의 식탁이 궁금하다면 수타 소바 가게에 들러보는 것을 추천한다. 일본은 중요 행사 때마다 소바를 먹는 풍습이 있어, 조금만 발품을 팔면 인기 있는 소바 가게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최근에는 밥에 가늘게 채 친 양배추를 깔고 그 위에 소스와 갓 튀긴 돈가스를 올리는 소스카츠동이 인기다. 카레 야키소바와 만주로 만든 텐푸리도 구미를 당긴다.

◆여성에 좋은 황산염 온천수

중심 시가지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히가시야마 온천은 여독을 풀기 제격이다. 20여 명의 전문 게이샤가 춤과 노래로 흥취를 돋우고, 황산염이 포함된 온천수는 류머티스·갱년기 증상, 고혈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사고 걱정 없는 지역

하네다 또는 나리타공항을 이용할 경우 JR동북신칸선으로 1시간 20분 거리에 위치한 고리야마역에서 카이소쿠전철로 갈아타고 약 1시간 정도 이동하면 아이즈와카마츠역에 도착한다. 센다이공항에서 내리면 고리야마역까지 JR동북신칸선으로 약 50분이다.

관광청 관계자는 "아이즈와카마츠시가 위치한 후쿠시마현은 2011년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있었던 곳이지만, 사고 지역인 연안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재해의 영향은 없다. 짧은 시간에 재건에 성공해 현재까지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21일에는 롯데그룹의 3사(롯데호텔·롯데면세점·롯데JTB)의 대표와 배우 최지우가 후쿠시마를 찾아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다음날인 22일 롯데그룹 임직원 60여 명과 함께 피난민 거주지 마츠기와 가설주택을 찾아 잡채, 부침개 등 한국 음식과 소주를 대접하며 위로의 시간을 보냈다.

롯데호텔 송용덕 대표는 "평소 각별한 유대감으로 맺어져 있는 일본이 대지진과 원전사태 등으로 어려운 일을 겪어 마음이 아팠다"면서 "이제부터라도 한·일의 문화 교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www.welcometojapan.or.kr(일본정부관광국) /[illegible] 기자

후쿠시마현 아이즈와카마츠시 – 가장 일본스러운 봄을 만나다

구라모토·수타소바 입맛 돋우고 온천 후엔 게이샤 공연도

서울힐튼 '맛의 야왕' 모여!

밀레니엄 서울힐튼의 프랑스 레스토랑 '시즌스'가 15·16일 미식가 고객을 위한 요리 축제 '제7(8)회 구어메 서클'을 연다.

프랑스 농어 훈장을 받은 박효남 총주방장의 조리팀이 와인과 어울리는 창의적인 요리를 선보인다. 참가비는 22만원(봉사료·부가세 포함). 문의 (02)317-3060

세종호텔 '프러포즈 특선'

세종호텔 와인&다이닝 베르디는 화이트데이를 맞이 14~17일 프러포즈 특선 메뉴를 선보인다.

'특선 A'는 시칠리아식 해산물 카포나타, 루콜라 크림 수프 등 7가지 코스 요리로, '특선 B'는 지중해식 해산물 안티파스토, 루콜라 크림 수프 등으로 구성됐다. 가격은 2인 기준으로 각각 11만원, 15만원. 문의 (02)3705-9146

제주신라 위버힐링 고객에 차량 무료 대여

넓은 제주도를 대중교통으로 다 둘러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나만의 렌터카를 타고 제주의 구석구석을 느긋하게 둘러보는 건 어떨까.

봄기운이 가득한 제주신라호텔이 'S카 서비스'로 여행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S카 서비스는 투숙객에게 전용 차량을 대여하는 서비스로 이용 3시간 전에 호텔 5층에 위치한 라운지 S에서 예약하면 된다. 빌린 자동차는 최대 6시간 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보험료와 유류비 등 비용 일체를 호텔 측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여행경비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S카 서비스는 위버힐링 S 패키지(36만~45만원)를 구매하면 이용할 수 있다. S카 서비스 외에도 비디 전망 객실 업그레이드, GAO와 함께하는 모닝 트레킹 와이너리 투어(2인), 객실 내 인터넷 승비스파존·프라이빗 비치 하우스 무료 이용, 라운지 S에서 밤 12시까지 음료와 다과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특전이 포함돼 있다.

위버힐링 인 네이처 패키지와 이어리브 패키지, 럭셔리 스위트 패키지에도 S카 무료 이용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 일반 투숙객은 라운지 S 이용 시(성인 1인당 4만8400원) S카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다. 문의 1588-1142

/[illegible] 기자

'한류 도시' 일산 첫 특급호텔 문 연다

20일 '엠블 호텔 킨텍스' 경기 최대 규모로 개장

경기도를 찾는 한류 관광객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일산 킨텍스 인근에 특급호텔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다.

대명레저산업은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 센터인 일산 킨텍스 바로 옆에 특급 관광호텔 '엠블(MVL) 호텔 킨텍스'를 오는 20일 개장한다. 지하 4층, 지상 20층, 객실 수 377실 규모로 스위트룸 34개도 갖췄다.

일산에 들어서는 첫 특급호텔로 경기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다.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인테리어를 살렸으며 피트니스클럽과 수영장, 사우나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한류월드호텔이 2017년까지 객실 수 252실 규모의 특1급 호텔을 지을 예정이며 고양시도 킨텍스호텔 건립을 재추진한다.

엠블호텔 관계자는 "대명 엠블호텔을 필두로 특급호텔이 잇따라 들어서면 킨텍스, K-팝 아레나 공연장, 한류월드가 어우러져 관광객 유치 등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llegible] 기자

'로또 쇼핑' 럭키백 열풍

**무작위로 상품 담아서 판매
운좋으면 정제액 몇배 득템
유통가 기획행사마다 매진**

무엇이 들어있는지 몰라 더 궁금하고 열어보는 재미가 쏠쏠 느껴지는 럭키백(럭키박스) 마케팅이 한창이다. 일본의 복주머니 행사에서 유래된 럭키백 이벤트는 상품을 무작위로 담아 일정 금액에 판매하는 방식. 예전의 럭키백 이벤트는 수백 명이 밤새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최근 럭키백 마케팅의 불을 지핀 곳은 스타벅스다. 2007년부터 매년 럭키백을 선보여 왔는데 올해도 1월 초에 준비한 5000세트가 반나절 만에 팔려나갔다. 개당 4만5000원으로 적지 않은 가격이지만, 경우에 따라 무료 음료 쿠폰을 비롯해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갖게 되는 행운을 얻을 수 있어 마니아들이 줄을 선다.

CJ오쇼핑의 패션몰인 '스타일 오 샵'에서도 최근 가방, 양말, 머니클립 등을 담은 럭키백을 내놔 26분 만에 매진되는 인기를 얻었다. CJ오쇼핑 e이미용사업팀 김경연 팀장은 "럭키백 이벤트는 고객들에게 구매보다 재미라는 측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화이트데이를 앞두고도 다양한 럭키백들이 등장하고 있다.

제이에스티나에선 지난 2월 밸런타인데이에 선보인 럭키박스가 완판되자 화이트데이를 겨냥한 두 번째 제품을 내놨다. '러브 박스(15만원)'에는 15만원대 이상의 주얼리를, '프러포즈 박스(40만원)'는 80만원대 이상의 주얼리를 담아 판매한다.

스와로브스키에서도 30만~70만원 상당의 제품 등을 담은 러브킷(25만원)을 14일까지 내놓는다. 신제품 목걸이 하나와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어떤 제품일지 모르는 미스터리 기프트로 구성했다.

롯데백화점은 화이트데이를 맞이 액세서리를 무작위로 채운 '럭키박스' 기획전을 14일까지 연다. 시계, 귀걸이 등 액세서리가 담긴 상자를 3만원, 5만원, 7만원, 9만원에 판다. 백화점 측은 "상자 안에 판매가보다 비싼 제품들이 들어있어 운이 좋으면 80%까지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효순기자 hsjeon@metroseoul.co.kr

청순 손예진 '정글 여전사'로

**아웃도어 와일드로즈
태국 화보촬영컷 공개**

배우 손예진이 '정글 여전사'로 변신했다.

스위스 아웃도어 브랜드 와일드로즈는 태국의 정글에서 화보 촬영 중인 손예진의 모습을 공개했다.

손예진은 그동안 보여줬던 순수하고 청순한 이미지에서 탈피해 강하고 활동적인 매력을 뽐냈다. 스타일리시한 아웃도어룩을 착용한 손예진은 카리스마 넘치는 분위기를 연출해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손예진이 로프에 매달린 채 활짝 웃는 사진에서는 거칠면서도 발랄한 매력까지 드러났다.

손예진의 저선 화보는 아웃도어 와일드로즈의 홈페이지(www.wildroses.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지원기자

'에그 맥머핀' 500만명에 무료로

**맥도날드 18일 오전 5시
전세계 매장서 아침행사**

"부지런한 얼리버드를 잡아라!"

맥도날드가 아침식사 시장을 잡기 위한 '아침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6년 업계 최초로 오전 4시부터 10시30분까지 판매하는 아침 메뉴 '맥모닝'을 선보인 맥도날드는 꾸준히 아침 특화 상품을 내놓으며 고객들을 공략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오전 8시부터 한 시간 동안 매장을 찾은 고객에게 무료로 원두커피를 제공하는 '프리 커피 데이' 이벤트를 진행했고, 최근에는 모바일 무료 커피 쿠폰을 받을 수 있는 '맥모닝 알람 앱'을 출시하기도 했다.

오는 18일 맥도날드는 전 세계 5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사상 최대 규모의 아침 캠페인을 실시한다. 인기 메뉴인 '에그 맥머핀'을 무료로 나눠주는 '내셔널 브렉퍼스트 데이' 행사다.

우리나라에서는 18일 단 하루 오전 5시부터 전국 260여 개 맥모닝 메뉴 판매 매장에서 매장당 선착순 1000명에게 에그 맥머핀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시아 전역과 중동·남아프리카의 5000여 개 맥도날드 매장도 같은 날 아침 무료로 500만 명의 고객들에게 에그 맥머핀을 나눠준다.

맥도날드 마케팅팀 조주연 전무는 "'내셔널 브렉퍼스트 데이' 행사를 시작으로 아침 고객에 특화된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이고, 맥모닝 메뉴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보람기자 kwon@

"프로바이오틱스, 질병 막는 힘"

**'유산균과 건강' 심포지엄
캘리포니아 의료진 밝혀**

장내 미생물균총의 불균형이 대장질환과 치매·암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킨다는 연구가 나왔다.

13일 '유산균과 건강'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수잔 린치 캘리포니아대학 샌프란시스코 캠퍼스 의과대학 교수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의 섭취를 통한 장내 미생물균총의 정상화가 질병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인체에 이로운 효과를 주는 체내 활성 세균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대부분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이며 일부 바실루스(간균)를 포함한다.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김동현 교수는 "유년기 장내 미생물균총은 성장 과정에서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면서 "신생아는 산모와의 접촉을 통해 처음으로 장내 미생물균총을 형성하기 때문에 출산 전 적절한 유산균 섭취로 산모의 장내 미생물균총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유산균과 건강' 국제학술심포지엄은 대한보건협회가 주최하는 학술 행사로 한국야쿠르트의 협찬을 통해 지난 1979년부터 2년에 한 번씩 개최되고 있다. /권보람기자

진짜 바나나즙 든 '우리두유' 아침 대용

동아오츠카가 고소한 두유에 진짜 바나나 과즙을 넣은 '우리두유 부드러운 바나나'를 출시했다.

지난해 10월 출시한 '우리두유 든든한 고구마'에 이어 새롭게 선보이는 우리두유 라인 제품으로 바나나 과즙으로 깔끔한 맛을 살리고, 3대 필수영양소와 무기질·비타민을 첨가한 것이 특징이다. 지방 함량은 낮추고 탄수화물·단백질 함량을 높여 아침식사 대용으로 좋다고 회사 측은 말했다. 가격은 800원(190㎖). /권보람기자

추신수 터졌다! 시원한 솔로

다저스 3선발 베킷 상대 손맛… 타율 0.429 불방망이

'추추 트레인' 추신수(31 신시내티)가 시범경기 첫 홈런을 날렸다.

추신수는 13일 미국 애리조나 굿이어 볼파크에서 열린 LA 다저스와의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 1번 타자 겸 중견수로 나서 3회 두 번째 타석에서 다저스 선발 조시 베킷을 상대로 동점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신시내티 이적 후 처음 기록한 홈런으로 시범경기 9게임 23타석 만에 손맛을 봤다.

1회 말 첫 타석에서 1루 땅볼로 물러난 추신수는 0-1로 뒤지던 3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베킷의 5구째를 받아쳐 오른쪽 펜스를 가볍게 넘겼다. 다저스의 3선발로 거론되고 있는 베킷은 추신수의 홈런 한 방으로 시범경기 무실점 행진을 7이닝에서 마쳤다. 추신수는 5회 2사 2루 찬스에서 대타 크리스 헤이시로 교체됐다.

7일 캐나다 WBC 대표팀과의 연습경기 3타수 3안타, 11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전 4타수 4안타 등 불같은 타격감을 이어가며 시범경기 타율을 0.429(21타수 9안타)까지 끌어올렸다. 이날 경기는 신시내티가 6-2로 승리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서로 외면하는 '피겨 여왕들' 피겨여왕 김연아와 동갑내기 라이벌 아사다 마오가 13일 '201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피겨선수권대회'가 열리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 버드와이저 가든스에서 마주쳤지만 서로 애써 외면하고 있다. 김연아는 이날 공식 연습에서 프리스케이팅에 이어 쇼트프로그램도 완벽하게 소화해 어필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아사다 마오는 자신의 주 무기인 트리플 악셀 점프를 여러 차례 실수하며 불안감을 노출했다. 이들은 14일 오후 11시30분 시작하는 쇼트프로그램에 출전해 맞대결을 펼친다. /김민준기자 연합뉴스

메시 2골! 바르셀로나 구했다

AC밀란에 4-0 대승… 챔피언스리그 8강 합류

리오넬 메시(25 바르셀로나)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2골을 터뜨려 팀을 구해냈다.

메시는 13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캄프누에서 열린 AC밀란과의 경기에서 전반에만 2골을 넣어 4-0 대승을 이끌었다. 원정 1차전에서 0-2로 패했던 바르셀로나는 1, 2차전 합계 4-2로 역전해 극적으로 8강에 올랐다. 6시즌 연속 챔피언스리그 8강행이다.

메시는 경기 시작 5분 만에 페널티 아크 부근에서 사비 에르난데스가 찔러준 패스를 받아 수비수 5명 틈 사이로 왼발 슈팅을 때 선제골을 뽑았다. 이어 전반 39분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의 패스를 역시 왼발로 마무리해 팀에 두 번째 골을 안겼다.

리오넬 메시가 팀의 두 번째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기세를 몰아 바르셀로나는 후반 10분 다비드 비야의 골과 종료 직전 호르디 알바의 쐐기골까지 묶어 완승을 거뒀다.

한편 갈라타사라이(터키)는 샬케04(독일)를 3-2로 꺾고 1, 2차전 합계 4-3으로 8강에 합류했다.

/김민준기자

우규민 LG 선발 한자리 '찜'

NC전 5이닝 3K 무실점 호투… 3경기 우천 취소

올 시즌 불타임을 노리는 LG 선발 우규민이 완벽투를 경쟁했다.

우규민은 13일 마산구장에서 열린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NC와의 시범경기에 선발 등판해 스트라이크존 구석구석을 공략하는 예리한 제구력과 낙차 큰 커브, 체인지업 등으로 NC 타자들을 공략했다. 5이닝 2피안타 3탈삼진 무실점으로 총 투구수는 55개였다. LG가 4-0으로 승리해 우규민은 승리투수가 됐다.

김용의는 7회 팽팽한 0의 행진을 깨는 결승타를 날리는 등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공격을 주도했다.

NC의 외국인 선발투수 에릭 해커는 4이닝 동안 삼진을 5개 잡고 무실점으로 호투해 합격점을 받았다. NC의 대항 신인 윤형배도 2이닝을 무실점 처리했다.

한편 이날 예정된 KIA-SK(광주) 롯데-넥센(사직) 삼성-두산(대구)의 시범경기는 비로 취소됐다. /김민준기자

◆ 프로야구시범경기 전적 13일

L G	000	000	103	4
N C	000	000	000	0

▲승 우규민 ▲세 정현욱 ▲패 이민호

승부조작 신고 포상금 2억

승부조작 신고 포상금이 2억원으로 대폭 뛰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 프로농구에서 승부 조작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13일 프로단체 사무총장급 긴급회의를 열고 자진 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처벌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확대하고 현행 1억원인 신고 포상금을 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승부 조작에 연루된 구단에 지원금을 줄이는 등의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통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9 What time is it? 시간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의 [illegible]

영어 통문장 익히기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5시에 저를 만날 수 있으세요?
아니오, 안 돼요.
아직 4시는 안 된 것 같아요.
분명 3시 30분쯤일 거예요.
내일 10시에 여기 와 있을 건가요?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Can you meet me at five?
No, I can't.
I don't think it's four o'clock yet.
It must be about three thirty.
Will you be here at ten o'clock tomorrow?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하기!

▶짧은 대화 훈련

문장 중에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말해보세요.

A It's four o'clock, isn't it?
B I don't think it's 4 o'clock 아직은.

정답 yet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It must be about [7 o'clock / 8 o'clock].
2 Will you be here [at 10 o'clock tomorrow / by 8 tomorrow morning]?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 1000

01 Arsmarth Premium paints are highly _______ to most stains and can be cleaned easily with soap and water.
(A) resistance (B) resisted
(C) resistant (D) resists

02 Because Legnlos Company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customer information, it has made data privacy a high _______.
(A) conformity (B) liability
(C) priority (D) seniority

01. 어스마스 프리미엄 페인트는 대부분의 얼룩에 매우 강하여 비누와 물로 쉽게 세척된다.
해설 are 뒤의 부사 highly의 수식을 받는 보어가 필요하므로 형용사 (C) resistant를 써야 한다.
어휘 be resistant to ~에 강하다, 잘 견디다 highly 매우 stain 얼룩
정답 (C) resistant

02. 레글리스 사는 고객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자료 보호를 최우선순위로 삼았다.
해설 '최우선순위로 삼다'가 적합하므로 (C) priority를 쓴다.
어휘 recognize 알다, 인지하다 importance 중요성 data privacy 정보 보호, 자료 보호 conformity 일치, 순응 liability 책임 seniority 연공서열
정답 (C) priority

TOEIC Speaking ▶ Jump Up TOEIC Speaking

Part 3 Respond to questions

4 6번 질문 유형 파악하기 (15초 답변)

1 때를 묻는 질문에 답변하기

Q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nt to the zoo?

A [과거 경험 시점]
The last time I went to the zoo was in May.
마지막으로 동물원에 갔던 때는 5월이었습니다.

[경험에 대한 내용]
I went to the zoo with my family on Children's Day. We saw many animals and had a good time.

일반적으로 When 질문에는 언제 그 행동이 일어났는지를 밝혀주고 그 이후에 대한 내용을 한두 줄 덧붙이면 된다. 마지막으로 동물원에 간 과거의 체험을 묻고 있으므로, 답변을 말할 때 반드시 과거시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본 지면은 YBM의 컨텐츠로 구성됩니다 ybmbooks.com 02)2000-0515

LOTTE Point
OK
롯데포인트와 OK캐쉬백이 만나
포인트 포텐이 터진다!
롯데 포텐카드니까 주말 공휴일 4배 • 10배 적립!